

최근 좋은 사람들과 베트남 북부 하노이와 하롱베이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하노이는 우리 서울만큼 세련되지 않지만 베트남 전통왕정의 중심지로서 현재인구 620만여명의 공산화된 통일 베트남의 수도이고, 하롱베이는 얼마 전 우리나라 제주도와 함께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아름다운 해상공원이다.

사실 그동안 월남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공산국가로써 수십여년의 지루한 동족간의 전쟁을 겪었고 비록 통일되었지만 전쟁의 후유증과 공산체제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불결한 생활환경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베트남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70연대를 연상했다. 그리고 값싼 임금을 이유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많이 늘어난 정도로 생각했었다.

**베트남에 대해 너무 무지했구나**

하지만 짧은 기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베트남에 대해 너무 많이 무지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우선 통계상으로 1인당 3천불 소득으로 현재 순위 123위의 가난한 나라지만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엄청난 천연부존자원을 보유한 결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다.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지로 중국 남부 동해안과 접하고 있고 풍부한 부존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 호시탐탐 외세의 침공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1000여년 중국의 지배와 200여년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다. 2차대전 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침입하였고, 1945년 8월 일본이 베트남을 떠나자 민주공화국이 성립되었지만 지배권을 되찾으려는 프랑스와 다시 전쟁을 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1954년 남북이 분단되었으나 10여년 이상의 지루한 월남전쟁을 통해 결국 통일을 이루었고 대국 중국과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도 치른 독한 나라다. 이렇게 끈질긴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남북전쟁 등 많은 시련과 수난을 통해 오늘날 베트남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질곡의 현대사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영웅 호치민은 민족 해방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초대 주석으로 식민시대 상징인 총독관저 근무 7일 만에 호사스런 집무실을 떠나 바로 영

정원사가 기거하던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집권 4년 만에 더 젊은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69세로 정계은퇴 후 작은 거처로 옮겼다.

그의 검소하고 강직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일화다. 권력을 통해 어떠한 부귀영화도 누리지 않은 혁명가 호치민 주석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와 자부심이 되고 있다는 자랑을 호치민 묘역을 찾은 외국관광객과 줄 이어 참배하는 베트남 학생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비슷한 역경을 겪은 우리에게 과연 그런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로 누굴 꼽을 수 있을까?

**젊은 사람과 모터사이클이 넘쳐나는 거리**

차창으로 스치는 농촌의 풍경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트남 벼농사는 2~3모작을 한다고 한다. 12월 초경입에

도 못자리를 준비해 1월에 모내기를 한다고 한다. 농기계가 거의 보이지 않는 들판에는 대부분 여자들이 못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비록 전통적인 벼농사지만 세계2위의 쌀 수출국이며, 커피, 차와 향신료 등도 또한 유명하다고 한다. 들판 건너 스치는 산기슭에서는 2~3m 땅을 파면 양질의 석탄이 무한정 나온다는 지하자원의 천국이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유기광물 자원과 고무, 주석, 아연, 금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굳이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의 부존자원은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지금 베트남에는 젊은 사람과 모터사이클이 거리를 넘쳐나고 있다. 자동차와 뒤섞인 무수한 모터사이클과 자전거 행렬이 설새없이 달리고 20~30대의 젊은 남녀들이 도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어디셔도 노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하교길 학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비록 평균 50만원의 박한 임금을 근로자들이고 관광객에게 귀찮을 만큼 호객을 일삼는 그들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한다. 복잡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긴박하거나 긴장된 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저 순박하다고나 할까? 웬지 여유가 있다고나 할까?

풍부한 부존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성장동력으로 베트남은 무섭게 성장할 것이다. 도시에 넘쳐나는 젊은 베트남이 전율을 느낄 만큼 무섭게 느껴졌다. 우리사회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선국 칼럼**

칼럼위원(시인, 토성면장)



**베트남의 짧은 여행**

**우리 사는 이야기**

김정균 칼럼위원



**아, 고성아**

고성에 정착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속초와의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고성군에 정착해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펜을 들었다.

속초와의 통합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논지는 크게 나누면 고성군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보존, 속초와의 통합시 오히려 경기가 더 침체되거나 고성군이 변동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 등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의 논지는 현재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고성군의 지역경기 침체로 속초와 통합되어도 잃어버릴 게 없다는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대안으로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과 주민들이 합심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통합논의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통합되면 안되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소수의 지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속초 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논리가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이미 통합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례를 분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정치·행정학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후 관련 시·군 실무자와 시민 대표자,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많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주민들의 노력로만으로는 되지 않고 관련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속초와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통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속초와의 통합은 불합리하다는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성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사진에서 제시하는 고성군의 미래가 밝다면 속초와 통합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속초와의 통합문제가 논의되기 전에 고성군은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가지 과제의 충돌, 인구 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늘리기, 자녀 교육, 거주지 확보, 군부대와의 훈련장 부지 및 군사통제구역 해제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청사

진을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리조트, 골프장 등이 유치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번번이 '환경'이라는 장애물에 막히고,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했지만 군인 및 대학생들의 주소이전이라는 임시미봉적인 해결에 그치고 있다. 또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개발이 미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일자리가 부족하여 고성출신의 젊은이들은 모두 타지에서 떠돌고 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를 타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를 비난하고(이런 부모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군청 공무원이 자녀 교육과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해 속초에 거주한다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건물주는 대피하고 고객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비난받을 수 있겠지

요), 고성에 새로 전입오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숙소가 없어 숙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문제로 골치를 썩던 대대리 포 사격장을 이전하는데는 합의되었지만, 장소 선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아직도 갈길이 멀고 군사통제구역 설정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토지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물론 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실무자들과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지금도 안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쩔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친덕으로 속초와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어 고성군이 시끄러우니 주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 고성군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힘을 합함으로써 고성군의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속초와의 통합 문제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균 칼럼위원 약력**

- 서울대학교 입학과 졸업
- 학사3기 임관(1983년)
- 육군본부, 국방부 근무
- 53연대 부연대장 역임
- 8군단 40관리 대대장 역임
- 2011년 10월 전역
- 현재 경동대 외래교수